

## 브라질 '10년 상반기 국제수지 분석 조사보고

상파울루사무소

-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7월 26일 2010년 상반기 국제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% 증가한 U\$166.7억 달러 흑자라고 발표
  - 자본수지의 경우 U\$418.7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U\$186.9억 달러 대비 무려 224% 가량 증가하였으나, 경상수지의 경우 적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.3배 증가한 U\$ 237.6억 달러
  - 이는 경상수지의 적자와 자본 수지의 흑자 증대현상을 현저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작년 연간 적자액인 U\$243.2억 달러에 근접

(단위 : 백만 달러)

	2009. 1~6	2010. 1~6
종합 수지	11,417	16,669
경상 수지	△7,177	△23,762
자본 수지	18,691	41,871
오차·탈루	△97	△1,440

- 브라질 중은에 따르면 경상적자의 급증 요인은
  - 수입의 증대 : 국내의 왕성한 수요와 헤알화 강세에 따라 수입 증가 (45%)가 수출 증가(27.5%)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(43.4%)
  - 대외송금의 증대 :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이 양호하였고 헤알화강세 그리고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 모회사의 자금부족 문제 해결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과실송금이 급증(37.8% 증가)

- 관광수지의 악화 : 소득 향상, 헤알화 강세에 따른 브라질인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관광수지는 작년 상반기중 적자가 U\$18.9억 달러이었으나, 금년에는 U\$41.1억 달러로 2.2배 증가

□ 반면, 자본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46%증가한 U\$ 52.5억 달러의 유입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상반기중 매달 증대하여 6월말 현재 U\$2,531억 달러를 기록

- 국제경제의 침체와 선진국의 저금리를 피하여 국제 유동자금이 브라질의 고금리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외자에 의한 금융투자가 전년 대비 4.6배한 U\$190억 달러를 기록

- 브라질의 리스크 개선과 월드컵, 올림픽에 따른 투자 무드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브라질 정부, 기업 및 금융기관에 의한 저코스트의 중장기 외자의 조달이 급증(2.2배)

### 2010년 상반기 브라질 국제수지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	2009년 1~6월	2010년 1~6월
<b>종합 수지</b>	<b>11,417</b>	<b>16,669</b>
<b>경상수지</b>	<b>△7,177</b>	<b>△23,762</b>
무역수지	13,909	7,878
수 출	69,952	89,187
수 입	△56,043	△81,309
서비스/ 소득	△22,750	△33,248
이전 수지	1,664	1,608
<b>자본수지</b>	<b>18,691</b>	<b>41,871</b>
자본 계정	581	494
금융 계정	18,110	41,377
직접투자	14,464	3,502
포트폴리오투자	1,397	22,911
파생상품	212	△17
기타	2,037	14,981
<b>오차·탈루</b>	<b>△967</b>	<b>▼1,442</b>

- 브라질 중앙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질의 금융당국은 외자의 브라질 내 금융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자의 확대에 따른 브라질의 외환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
  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럽국가들의 금리 인상 여부와 국제시장의 회복에 따라 국제유동자금의 브라질 이탈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브라질 리스크의 악화 등으로 외환사정이 악화될 순 있으나 단기간 내에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